

# 당신을 위하여

February, 2020 |

112 | LIFESTYLE  
last look



## 당신을 위하여

지난 40여 년간 텍스트를 매개로 사회와 개인, 정치적 주제를 다루어 온 세계적인 개념 미술가 제니 홀저, 격언, 속담 혹은 잠언과 같은 형식으로 역사 및 정치적 담론, 사회 문제를 주제로 자신이 쓴 경구들을 뉴욕 거리에 게시하면서 자신만의 텍스트 작업을 선보였다. 이후 티셔츠, 모자, 명판 등과 같은 일상 사물에서부터 석조물, 전자기기, 건축물, 그리고 자연 풍경 등에 언어를 투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간을 활용해 공공장소에서 대중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작업을 지속해 왔다. 7월 5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리는 <당신을 위하여: 제니 홀저> 전시회에서는 포스터, LED 사인, 돌 조각 등 작가의 가장 잘 알려진 매체들로 구성된 작품 3점을 미술관 실내·외 공간에서 선보인다. 전시 공간에 맞춰 특별히 제작된 작품들은 제니 홀저가 최초로 한국어를 활용한 신작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 특히 서울관 로비 벽면을 채우고 있는 1,000장이 넘는 포스터로 구성된 작품은 <산동적 에세이(Inflammatory Essays)> (1979~1982) 시리즈 25개 중 각기 다른 색상으로 구현한 12가지 포스터와 <경구들(Truisms)> (1977~1979) 시리즈에서 발췌한 문장 240개를 인쇄한 포스터로 이뤄졌다. 구조적이고 함축적인 작가의 언어를 직설하게 해석하고 담아내기 위해 한유주(소설가, 번역가)를 비롯해 전문 번역가들이 번역에 공동 참여했으며, 안상수를 비롯한 타이포그래피 디자이너들의 협업을 통해 완성되었다.

<경구들>(1977~1979)로부터, 2019  
종이에 오프셋 인쇄 포스터, 88.3 x 58.1 cm, each  
<산동적 에세이>(1979~1982)로부터, 2019,  
유색 종이에 오프셋 인쇄 포스터, 43.2 x 43.2 cm, each

Exhibition view: MMCA Commissioned Project FOR YOU, Jenny Holzer,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2019  
© 2019 Jenny Holzer, member Artists Rights Society (ARS), NY Society of artist copyright of Korea (SACK), Seoul

### information

■ 기간 7월 5일까지  
● 장소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및 과천관